

“책과 함께 하루를 연다”

‘사상 최대의 불황기’에서 곧바로 ‘책의 해’를 맞은 출판계는 아직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무엇인가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경륜을 지닌 출판인들은 “출판계는 항상 불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출판환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급한 출판인들의 ‘엄살’과 인내심 부족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다. 이말에 따르면 ‘책의 해’가 불황을 금세 활황으로 둔갑시키는 연금술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올 한해가 ‘책의 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면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오히려 작은 데서 온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한번, 한줄이라도 읽게 되는 신문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책의 해’ 제정 그 자체를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와 행정책임자들의 인터뷰기사, 각계의 제언 등이 홍수를 이루고 난 뒤 그만큼의 지면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는 내심 궁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문면수의 증가와 더불어 부쩍 늘어난 문화면 기사 가운데 일주일에 한번꼴로 대할 수 있었던 출판관련 기사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신정연휴를 보내고 펼쳐든 한 주간신문의 문화면 한편에서 발견한 ‘오늘의 새책’ 코너는 그 ‘오늘’로 인해 인상 깊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 한편의 새 책을 독자와 함께 읽으며 하루를 연다”는

의미를 지닌 이 신설코너는 ‘책의 해’와 관련한 그 어느 특집기사보다도 주의를 끌 만한 것이었다. 일년 내내 신문독자들에게 ‘책이야기’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문기사는 앞서 얘기한대로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신문사는 ‘책의 해’ 관련 특집면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획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고,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번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같은 작지만 큰 변화,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일로부터 출판계 활황의 기대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올 한해는 책을 매개로 출판계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이자 출발점이지, 풍성한 수확을 앉아서 거둘 수 있는 불로소득의 기회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 사람들 모두가 신문을 읽을 때 문화면을 건너뛰고 가지 않기를...

— 정소연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서양사학자 이광주교수(인제대)의 고급한 에세이 「유럽사회, 풍속산책」(까치)은 딱딱한 史書를 쉽고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학자로서의 관심사와 몇 차례에 걸친 기행의 기록을 한데 모은 이 책은, 역사를 교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안내서로 읽힌다. ‘커피하우스와 살롱’ ‘유럽의 유혹’ ‘역사산책’ ‘지식인과 사회’로 구성된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사학자의 지적 순례를 보는 듯한데, 이 가운데 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우리들이 오늘날 말하는 ‘원고’의 어원인 라틴어의 ‘매뉴스크립타’는 손으로 쓴 手記, 稿本이라는 의미와 함께 寫本의 의미가 있다. 그 서사의 재료는 고대이집트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나일강변에서 재배된 다년초인 파피루스였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로 대체되기 전까지 양피지, 자우피지를 사용하였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서적이란 바로 손으로 쓰인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그 서사하는 일, 즉 책을 만드는 일은 거의 모든 유체노동이 그러했듯이 노예의 일에 속하였다. 많은 노예가 필사대 앞에 엎드려 낭독되는 원고를 받아 썼다고 한다. 일반사람들의 절대다수가 문맹이던 고대사회

에서 필사에 종사한 노예들의 출신이 책을 대할 수 있었던 특권계층에 속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노예의 저렴한 노동력의 혜택으로 당시 서적은 중세와는 달리 비교적 저렴하였다. ‘책방’의 출현은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로, 특히 지식인의 도시인 아테네의 책방들은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책의 발행부수는 기껏해야 몇 백부를 넘지 못했다. 독자층은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학식자들이었다. 당시의 학식자란,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개가 귀족출신이었다. 문필가가 널리 일반독자층을 갖게 되는 것은 실로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중략)

서적의 제작은 수도원이 독점하였고, 수도원 안의 책을 만드는 공방은 사본공방이라고 불렸다. 그 사자생은 수도사였다. 사자생들 중에서 글을 잘쓰는 능서가는 귀중본을 다루었으며, 그밖에 장식문자 화공이 있었다. 공방의 장은 교정자(교열자)로서 사본의 마지막 손질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교정을 거친 사본은 제본사의 손에 넘겨졌다. 중세의 서적간행은 많은 경우, 헌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저자가 그의 원고를 베껴쓴 책을 자신의 패트런인 군후나 고위성직자에게 바치는 의례가 책을 세상에 내놓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중략) 중세의 서적은 양피지나 자피지에 솔개펜으로 사자되었고, 목판이나 금속커버로 제작된 彩飾本이 많았다. 그것은 고위층에 한정되거나, 신의 영광을 찬미한 내용 때문에 더욱 호화미장본으로 꾸며졌다. 유럽 도처의 박물관, 수도원, 대성당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보게 되는 호화미장본은 서적이기에 앞서 옛 궁전의 전시대에서 볼 수 있는 호사를 극한 공예품과도 같이 느껴지며, 유럽왕조시대의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조형의지에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어려운 제작과정을 거쳐서 호화롭게 만들어진 중세의 서적은 그 자체가 금은보석 이상의 귀중품으로서, 그 존재는 소유자인 왕후, 귀족, 고위성직자 및 수도원, 성당, 대학의 사회적 신분 혹은 격을 나타냈다. 중세에서 서적은 읽히기에 앞서 하나의 보배로운 상종물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들은 여러 박물관, 대성당 등에서 등표지가 철책로 독서에 묶여 있는 책을 보고 놀란다. 이것은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사본시대의 책은 양손으로 받쳐 들어야 할만큼 무거운 대형본이 많았다.

세밀화로서 장식한 양피지본, 때로는 금은박이나 에머랄드 등 각종

보석이 박힌 호화장정본은 물론, 사본시대의 모든 서적은 대단히 값비쌌으며, 일반 신부의 경우 성서 한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년 동안의 수입을 저축하여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더욱이 일반민중에게는 책이란 가까이할 수 없는 무연의 존재였다. 민중은 성직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드는 성당의 돌에 새겨진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상이나 사도들과 성자, 성녀들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는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 그들은 문자가 쓰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찾았던 것이다.

서적이 희귀한 시대는 문맹의 시대에게 마련이다. 유럽 중세를 통해 전체인구의 90퍼센트가 문맹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혁명 직전에 파리주민의 약 70퍼센트가 자기 이름도 못썼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별로 놀랍지도 않다. 비단 일반민중에만 문맹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귀족의 대다수와 지식인으로 자처한 성직자의 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였다. 13세기 귀족의 태반은 독서능력이 없었으며, 대주교나 주교 등 고위성직자 중에는 12세기에 이르러서도 문맹인이 있었다. 13세기말의 10년동안 프라이부르크의 독일 기사 수도원의 경우, 관구장 이하 전원이 문맹이었다고 한다.

출판저널

통권 제120호 / 1993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鏞鏞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筱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寧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吳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履 | 安秉永 |
| 安鍾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璽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靚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秉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讓 | 韓勝憲 | 許顯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